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4.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**美 콜로라도 총격범, 이슬람 혐오 및 인종차별 등에 반감**
 - 3.23 美 경찰은 콜로라도 총격범 「아흐마드 알리사」가 시리아계로 페이스북에서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드러냈으며, 고교 시절 인종차별 발언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
 - * 3.22 콜로라도주 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1명 등 10명 살해
- **美, 총격으로 '20년 한 해 동안 약 2만명 사망**
 - 3.24 WP는 '총기폭력 아카이브' 자료를 인용해 '20년도 총격 사망자는 19,380명(日평균 53명)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 총격 부상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고 보도
 - *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률과 스트레스 증가, 치안시스템 붕괴를 원인으로 분석
- **콜롬비아, 무장혁명군(FARC) 추정 차량폭탄 공격으로 43명 부상**
 - 3.27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코린토 시청·경찰서 인근에서 '콜롬비아 무장혁명군'(FARC) 잔당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공무원 등 43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
 - * 공산주의 성향의 무장단체로 '16년 해체되었으나 일부 조직원들이 테러·범죄 행위 지속

아 · 태평양

- **印尼, 성당 앞 자살폭탄 테러범은 신혼 부부**
 - 3.29 인도네시아 경찰청 대변인은 자살폭탄 테러로 숨진 남성과 여성이 6개월 전에 결혼한 부부로 확인됐으며, 범인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다고 발표
 - * 3.28 솔라웨시섬 마카사르 성당 앞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 2명(범인)·부상자 10여명 발생

중 동

- 후티반군, 휴전 제의 하루 만에 사우디 공항 드론 공격
 - 3.23 로이터통신은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 외무장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전을 제안 받은지 하루 만에 사우디 남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하였고 보도
 - * 후티반군 대변인은 '적대 행위와 봉쇄 조치가 중단되지 않는 한 직전은 계속될 것'이라고 언급
- 시리아, 난민 캠프에서 ISIS 활동 차단 대테러작전 전개
 - 3.28 AFP통신은 시리아민주군(SDF)이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주 알홀 캠프*에서 대대적인 대테러작전을 전개해 ISIS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민들과 외국인을 30명 이상 체포했다고 보도
 - * 同 캠프에는 ISIS 연계가 의심되는 여성·어린이 등 난민 62,000여명 수용 중

아프리카

- 알샤바브, 지부티內 美·佛 목표물 공격 촉구
 - 3.28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지도자 「오마르」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“지부티에 있는 미국·프랑스의 주요 목표물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라”고 조직원들에게 촉구
 - * 美軍 4,000여명과 프랑스軍 1,500여명이 지부티에 주둔하며 대테러작전 수행
- 보코하람, 경제적 목적 위해 학생 납치
 - 3.29 NYT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보코하람과 각종 갱단이 잇달아 저지르는 무장납치의 진짜 목적은 '서양 교육이 이슬람 교리에 위배'된다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닌 경제적 목적이라고 보도
 - * 나이지리아에서 '11년~'20.4월간 납치 몸값으로 1,834만달러(약 207억 5,300만원) 지불

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市 자살폭탄 테러

- '16.3.27 18:40경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의 주도(州都) 라호르市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72명이 사망하고, 300여명이 부상
- 同 사건은 문화·교육 도시인 라호르市의 도심에 위치한 '굴산-에-이크발' 어린이공원에서 기독교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여성·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발생
 - 범인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볼베어링을 이용한 폭탄을 휴대하고, 인파가 붐비는 공원 입구 주차장 및 매표소 부근에서 자폭
- 사건 직후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의 강경분파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'자마툴 아흐라르(JuA)'는 펀자브주에서 활동하는 자신들의 조직원이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며 배후를 자처
 - * 파키스탄 인구 1억9,900만명 중 약 97%가 무슬림이며, 기독교 신자는 1.6%로 추정
- 파키스탄軍 대변인은 “이같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”고 발표

< 폭발물 테러의 종류 >

- (폭발물 테러 개요) △군용 폭탄, △다이너마이트 등 상용 폭발물, △급조폭발물 (IED), △사제폭발물 등을 이용한 테러를 통칭(주로 급조폭발물과 사제폭발물이 악용)
 - * 폭탄(폭발물)은 전원(Power), 스위치(Switch), 뇌관(Initiator), 폭약(Explosive)으로 구성
- (급조폭발물) 보통 기존의 폭발물에 약간의 개조·가공을 거쳐 전투·분쟁지역 등 현장상황에 맞게 원격 또는 부비트랩(함정) 방식으로 폭발하도록 꾸민 것을 통칭
- (사제폭발물) 폭발물 구성요소 4가지 재료를 각각 구해 만든 폭발물을 지칭하며 HME(Home made Explosive)라고 칭하기도 함
- (주요 사제폭발물 종류) △뭇·나사 등을 비산시켜 피해효과를 높이는 네일(뭇)폭탄, △폭발압력을 최대한 응집했다가 확산시켜 폭발력 효과를 높이는 압력술폭탄, △양 끝단을 단단히 막은 금속파이프로 압력술과 같은 효과를 내는 파이프폭탄 등
 - * 압력술폭탄·파이프폭탄 안에 볼베어링·뭇·나사 등 쇠붙이를 넣어 큰 피해를 극대화